

고래들 틈의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격언은 국제관계에서 겪는 우리의 아픈 경험을 實存적으로 토로한 告白이다. 우리는 언제나 強大國의 위협 속에 시달려 왔다. 韓末에서처럼, 최근 이른바 세계의 強大國들끼리 韓國 문제를 가지고 쫓락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길조인가 흉조인가? 그런데 當事者인 우리를 쫓 떼 놓고 저쪽끼리 마치 한 짐승을 흥청이타도 하듯 한다. 민족적 모욕감을 금할 수 없다. 한국 문제는 한국 사람이 主體가 되어 處理되어야 함은 너무도 當然하거늘 저들의 눈에는 우리가 自主적으로 自身の 일을 處理할 能力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까닭은 어디 있나?

미국이 日本과 中共을 드나들면서 우리 문제를 논의한 듯 한때, 우리의 意見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인가. 역시 미국이 主導役割을 하여 日本과 中共과 제휴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는 소련이 어떻게 나올런지 크게 注目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이런 강대세력 앞의 도마 위에 놓인 물고기인가? 팔기 위해 코를 꺾어서 시장에 내다 맨 송아지인가? 하여간 우리는 어떤 운명이 밖으로부터 결정지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온 민족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自主權을 발동하되, 국제적 힘의 균형을 바로 파악할 뿐 아니라 政治倫理에 있어서도 支持를 받을 수 있는 外形과 內實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國民의 衆議를 모으고 國民의 意志와 잘 짚을 선택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소식통이 한곳에 독점되어 있으면, 국민들이 바른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民族의 實體는 어디까지나 民衆이다. 民衆이 모르게 民族의 未來를 결정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民族에게 어려움이 닥쳐 올수록 그 사실을 그대로 이 民衆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므로 衆議에 의한 판단과 自發的인 決斷이 求心化될 때 그것이 이른바 總力安保의 勢力이 되는 것이다. 危機일수록 國事를 이 民衆에게 부쳐 方向을 결정해야 한다. 새우가 고래와 맞 싸울 수는 없어도 그 많은 발들, 그리고 그 촉각을 다 동원하면 결코 깔려 죽지 않는다.

<주간>